

# 국립전주박물관 '용담, 새로이 기억하다'

31일 용담댐 건설 20주년 기념 진안군·K-water 용담댐지사 공동 특별전 진행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오는 31일 특별전 '용담, 새로이 기억하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전시는 용담댐 건설 20주년을 기념해 진안군, K-water 용담댐지사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2001년 국내 5번째 규모로 완공된 진안 용담댐은 전북 지역과 더불어 충남 일부지역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다목적 댐이다. 댐 건설로 형성된 용담호의 물은 도민의 생명수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마이산 등의 관광 명소와 함께 전북 지역의 중요 시설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댐 건설로 인해 잠긴 용담 마을사람들의 삶을 조명하고,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댐 건설 과정과 의미, 그리고 발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옛 용담 사람들의 흔적을 살펴본다. 또한 이제는 사라진 고향, 용담을 기억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한자리에 모았다.

1부 '물속의 마을을 들여다보다'에서는 용담 사람들이 쓰던 생활용품과 물속에 잠긴 학교의 물건들을 통해 그들의 삶을 짐작나마 느껴볼 수 있다. 2부 '변화의 파도가 밀



용담댐 전경.

려오다'는 용담댐의 건설과정과 의미를 조명한다. 3부는 용담댐을 건설하면서 진행된 발굴조사 성과를 압축해서 선보이는 '옛 사람의 흔적을 찾다'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용담을 기억하고 기록하고자 했던 여러 사람들의 노력들을 모았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전을 통해 전북 지역의 중요 시설인 용담댐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와 지역민들의 삶을 이해·공감하며, 이를 토대로 지역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군산 시간·풍경 담은 작품 전시회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내달 26일까지 '그림:人, 시간의 숨과 결' 개최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오는 9월 26일까지 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1층)에서 '그림:人, 시간의 숨과 결'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림:人'은 군산시민 12인이 모여 활동하는 순수 창작 아마추어 그림동아리로 기존 '색깔 나무'라는 이름으로 6회의 정기전을 개최했다. 2년 여 간의 휴식기간을 거친 후 '그림:人'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결성해 근대역사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에서 첫 전시회를 열게 됐다.

이번 '시간의 숨과 결'전은 참여작가 12명이 길게는 70년의 기간동안 우리고장 군산에서 살아오며 느꼈던 감정과 의식, 소소한 풍경 등을 선과 색채에 이입시켜 표현한 경암동 철길마을, 해바라기, 산책, 금강하구 등 서양화 작품 12여 점으로 구성됐다.

'그림:人' 고석현 대표는 "이번 전시가 근대역사박물관에 방문하는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정신적 휴게실 같은 공간이 되어 지쳐있는 몸과 마음이 잠시나마 쉬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전시를 준비하였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민열린갤러리 전시작품을 대상으로 전시 영상을 홈페이지 및 박물관 SNS 채널에 공개하는 온라인 전시도 병행 운영하며 시민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매년 전시참여작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작가들에게는 박물관 시민열린갤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은 오는 9월 26일까지 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1층)에서 '그림:人, 시간의 숨과 결' 전시회를 개최한다.

러리에서 1개월 가량의 전시 기회와 함께 전시 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하고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 남원 성시리 산성 긴급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개최

기초자료 확보·관리방안 마련 위해

남원시는 25일 오전 11시, 남원 성시리 산성 발굴조사 현장에서 학술자문회의와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성시리 산성 긴급발굴조사는 산성의 명확한 성격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유적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발굴조사로, 2021년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사업모집 공고에 선정되어 진행하고 있다.

성시리 산성은 남원시 보절면과 장수군 산서면의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행정구역인 거사물현, 통일신라시대에는 군사시설 거사물성이 설치되었다고 추정된다.

급변 발굴조사에서는 남성벽 안쪽 평탄지에 위치한 집수시설 1기를 확인, 집수시설은 원형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위쪽이 넓고 아래쪽이 좁은 역사다리꼴을 이룬다.

유물은 대부분 백제토기로 삼족토기, 향아리 등과 함께 바다에 깔은 기와편이 다량으로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을 통해 산성의 운영시기를 6~7세기 전반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집수시설은 입실 성미산성, 광양 마로산성 등 주로



남원 성시리 산성 집수시설 석축 내부.

백제시대 산성내부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 변천양상을 및 축조기법을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완주군, 2회차 전북혁신도시 힐링콘서트 개최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음악으로 세계여행을 떠난다. 25일 완주군은 2회차 전북혁신도시 힐링콘서트를 26일 저녁 7시 연다고 밝혔다.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커피' 공연팀이 '노래로 떠나는 세계여행'을 주제로 유럽국가의 친숙한 멜로디의 민요와 클래식 음악을 들려준다.

세계여행을 떠나는 설렘 가득한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유튜브에서 완주향토예술평화회관(<https://www.youtube.com/channel/UCOHE52AJW4NJDAMI9UOYQIQ>)을 검색하면 된다.

최성호 공연개발과장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과 지역민에게 문화향유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전주대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 실시

전주대학교 한국고전번역원 HK+연구단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센터장 서정화)는 9월 1일부터 안골노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인 '2021 나의 삶, 나의 이야기-마음의 창'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중장년·노년층을 대상으로 수강생의 심상 치료와 더불어 '문화를 활용한 나의 삶 쓰기'를 목표로 10월 8일까지 매주 수·금요일 총 10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강좌를 진행하는 박정혜 심상 시치료센터장은 "어르신들이 각자의 삶을 말하고 듣는 과정을 통해 지니온 인생과 남은 인생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으로 공감하고 치유하는 시

간이 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화 센터장은 "앞으로도 인문학 강좌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강좌를 꾸준히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학교 HK+연구단 홈페이지([www.jiac.kr/hk/](http://www.jiac.kr/hk/))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강좌 신청과 일정에 관한 문의는 전주대학교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063-220-3201~3, 3207)로 하면 된다.

한편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에서는 온다라 교양 플라자 소담소담(小談笑談)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